

2022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 요약 보고

일 시	2022. 10. 12.(수) 9:30~11:30	
진행방법	대면회의 및 서면동의	
참 석 자	대면회의	-당사자 대표: 김용재(신체장애인), 오영환(정신장애인) -활동지원사 대표: 김기순 -지역사회 대표: 김승천 -센터장: 최현식
	서면동의	-전문가 대표: 전경철
불 참 자	-김미연(당사자 대표), 최윤희(장애인복지과 팀장)	
회의내용	<p>1. 보고안건</p> 가. 제1호 전차회의 보고(<u>보고접수</u>) 나. 제2호 3/4분기 실적 보고(<u>보고접수</u>) 다. 제3호 3/4분기 세입·세출 결산(<u>보고접수</u>) <p>2. 의결안건</p> 가. 제1호 제3차 추가경정(예산안) 승인(<u>원안가결</u>) 나. 제2호 운영규정 개정(안) 승인(<u>원안가결</u>) 다. 제3호 활동지원사업과 센터 운영위원 분리의 건(<u>원안가결</u>) <p>3. 기타안건</p> 가. 연말 사업 성과보고회 진행 방법 논의 나. 센터 내 공간 부족 및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센터 이사 논의 다. 사업에 관한 의견 및 요청 - 보치아 흡통 및 공 구매 요청 - ‘네바퀴로 가는 인권’ 사업 진행 시, 중랑구 외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긍정적·부정적 편의시설을 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라는 의견	
안건에 대한 운영위원 의견과 반영내용	<p>1. 개인별 권익옹호 진행 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센터에서 김승휘 변호사를 위촉하여 변호사 비용을 절감하고 당사자를 위한 법률자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→ 현재 김승휘 변호사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고 김승휘 변호사와 논의 후 위촉하도록 하겠음.</p> <p>2. 자립생활주택 가형, 다형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.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. → 가형은 신체장애인, 다형은 발달장애인 대상이며,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 연계해주시면 지원주택 신청을 같이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음.</p>	

3. 센터에서 지원주택을 운영해주길 희망한다는 의견

→ 현재 대부분 큰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, 중랑구에서 운영을 승인해야 할 수 있음. 중랑구에서 의지가 있다면 센터에서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.

4. 탄력 근무가 일 년 이상 근로한 직원만 가능한데 장애인 근로자는 1년 미만이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하다면 적용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

→ 예외규정으로 만들어 반영하도록 하겠음.

5. 성과보고회는 찾아가는 방식도 좋으나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용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위한 자리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의견

→ 함께 식사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성과보고회 자리를 마련하겠음.

6. 보치아 물품(흙통, 공)이 오래 사용하여 많이 낡았음. 새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

→ 구매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겠음.

7. 위원들께 지급되는 회의비가 너무 적어서 상향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

→ 다음 운영위원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.